

큰스님 수행한담

어떤 어려움도 해결돼요”



○74년 도선사주지로 도선사를 참배한 태극 중경을 맞이 하고 있는 혜명스님(사진 왼쪽).

면서 중이 돼도 좋고 안돼도 상관없이 일도 하고 잔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 즉시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출가하겠다는 말보다도 도인스님들 곁에서 생활하기만 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절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청담스님은 목안을 하고 계셨고, 대중을 거느리는 것은 모두 성철스님의 몫이었습니다.

헤어질 수 없다는 것에 눈을 뜬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가장 혹독하게 교육받은 과정이 탁발이었습니다. 지금은 탁발이 사회에 잘못 응용돼 중병으로 금지돼 있다고 들었는데 탁발은 내게 큰 공부였습니다. 출가 수행인의 본분은 스승을 존중 공경해야 하고 고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탐 진 치 3독의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출가정신을 단련하고 아상(我相)을 꺾는 한 방법이 탁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스님을 위해 장삼을 헤드리고 대중스님네가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양식을 사중에 공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탁발해서 대중공양 은사스님 장삼 헤드리었어요 봉암사 대중되려고 매일 나무하고 능엄주 외웠죠”

된 쌀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로부터는 둘이 나누어 따로따로 하기로 하고, 음식을 거쳐 과실에 이르기까지 1주일쯤 탁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시주물로 우리 스님께 장삼을 헤드리고 설날 잡쌀을 사서 떡을 해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 평생의 살림살이를 장만했던 곳은 대승사 산내 암자인 묘적암이었습니다. 내용화상의 삭발도항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산 정상에 있고 도량이 작아 내 혼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끼니는 밤 대신 생식하는 벽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잎을 따다 그늘에 말린 다음 가루를 만들어 조청이 반죽을 하여 먹기 좋게 환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마음이 흩어질세라 장삼을 벗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오로지 화두를 일념으로 붙들고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움직이지 않아 선정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기가 평생 중노릇하는데 밑천이 되고 양식이 되었습니다.

서의 계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 깨달음과 해탈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자항(慈航)이 됩니다. 그래서 계는 약의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암흑의 구렁텅이로부터 광명의 세계로 진진하게 하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진리를 담은 그릇이라면, 계는 곧 그 그릇을 깨끗이 하고 빛나게 정엄하는 일에 비유됩니다. 만일 그릇을 더럽히거나 잘못 다루어 깨뜨리면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계를 깨뜨리면 몸도 마음도 따라서 상처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악담을 자꾸하면, 성격까지 파괴되고 얼굴의 인상도, 몸가짐도 따라서 거칠어지게 됩니다. 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간사하게 거지같이 물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연기의 원리보면 모든 법이 보입니다” “계율은 악을 막고 선 길러주는 나침반”

니다. 그후 청담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고 행자노릇을 했습니다. 봉암사 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엄주>를 외워야 하고 하루 나무 한짐을 꼭 해야 하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긴 능엄주를 죽어라고 외웠습니다.

면서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반스님은 반야심경을 외고 나는 집안에 들어가서 동냥을 받는데 처음이어서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청피한 마을에 영접도 잘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노보살이 큰 바가지와 들고 나오길래 한 바가지인가 했는데 바닥에 조금 깔린 쌀을 가지고 나와서 조금 붓고는 일할 한번 쳐다보고 또한번 조금 붓고 쳐다보기를 10분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시주를 받았다고 해서 곧 돌아서서 울것이 아니라 특경하던 반야심경을 다 마쳐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꼭 밥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절을 탁발했지만 시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겁니다. 나는 계를 지키라고 답해줍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그릇된 삶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실천지침입니다. 그것이 있고 없음을 마치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에 나침반이 있고 없음을 같습니다. 혹자는 계율이 없어도 바르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계가 없으면 바른 생활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르게 행동하다가 또 마음이 험물어지고 방일해지면 곧 잘못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계는 악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선을 길러주는 기르진 빵이 되며, 특히 불교에 있어

이영현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장) 나의 수행일기. 내가 근무하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위치한 이곳 경주는 신라불교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다. 곳곳의 불교유적과 부처님처럼 인자한 미소와 소박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불교에서 말하는 역설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병원 불교회의 대표직을 맡아 의술진달과 불교활동까지 함께 해내는 중책을 맡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환자 대할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눌수록 넉넉해진다” 늘 되새겨

덕 고승이 계시면 사람들이 온다”는 한말씀으로 그 그러한 열려를 일시에 불식시켰다. 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의사로서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이끌어 주고 있다.

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준다”는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욕심없이 모든 일상생활을 펼쳐나가기 위해 불심을 다하고 있다.



병원이 개원된 지 8년 가까이 흐른 지금, 병원 앞으로는 경주시내 중심부와 바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뚫렸다. 처음 운영했던 연 건평 5천여평의 병원 공간이 좁아 새로이 3천여평 가깝게 증축을 해 8월에 준공검사 및 고불식을 마치고 이사까지 마쳤다. 그야말로 모범적인 불교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일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한국전력공사에서 아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를 따듯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추천 옥산가 옥의 신비! 장가안가가길 잘했네. 최정호의 원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포도자기 포이금 수상. 중국대 단치평 한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교활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베스트셀러 「저게는 맨날 고기 먹고...」의 저자. 우악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동양철학 길잡이 사/주/박/사. 위기가 남는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인생의 등대가 되어 줄 오묘한 진리, 역학의 세계 역학의 등불을 사주박사가 들었습니다.